

편의·문화·복지시설 집중...젊은층 돌아오는 농어촌 만들어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섯 가지 제안

광주일보·광주전남연구원 공동기획

(5) 국가 자산인 농어촌 미래 담보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농어촌지역 인구소멸 위기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농어촌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어촌의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면서 외국 인근로자 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에 진입했으며, 조만간 소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멸위험지수(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가 넘는 0.2 미만이면 소멸고위험지역인데, 농촌(0.341), 어촌(0.303), 섬지역

(0.234) 등이 모두 여기에 가깝다.

서 의원은 "어촌사회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는 국토관리차원에서 꼭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제정의 효율성과 정책효과와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어촌지역을 단순히 농축수산물 생산지로 여기는 단편적인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농어촌이 식량 주권을 지키는 전진기지이면서 동시에 산림, 해양 등 자연경관을 유지·관리하는 핵심요소라는 점에서 정부가 농어촌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농어촌은 생태계 보전, 환경보호, 수자원 확보, 자연재해 방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도출 김용욱 선생 역시 "문재인 정부가 농업을 남북문제만큼 중요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남도의 농민수당 정책을 호평한 바 있다.

그는 광주일보에 "국가적 명운이 달린

전남도 도입 '농어민 공익수당'

정부 재원 부담하고 지급액 높여 지속가능한 농어촌 유지해야

농업 공익적 가치 실현 장치 마련

지역간·도농 격차 해소 위해

정부가 모든 노력 기울여야

남북문제와 똑같이 농어촌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반·편의·문화·복지시설 등을 집중 설치하고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젊은층들이 귀농·귀어·귀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들이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

한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해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고, 지급액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1월부터 3월 6일까지 신청한 19만5904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원씩 모두 1175억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배부하며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주고 있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도와 시군이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 2월 1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5년 6개월만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위원회(이하 삶의 질 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농어촌의 생존을 강조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전략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정 총리는 "농어촌이 살기 좋아지면 도시인구의 분산과 국토의 균형 발전, 저출산 추세 완화 등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5년간 모두 51조원을 투입하는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기본계획(2020~2024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정원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그동안 수도권 집중화와 삶의 질 저조, 혁신에 대한 기회 제공 측면에서 도·농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또 다른 불공평한 출발선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간, 도농 간의 격차 해소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주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연구위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의 지표(Better Life Index)'에서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29위로 2014년 25위에서 매년

순위가 하락하고 있다. 대도시지역은 도시와 지역 대비 높은 지출비용 및 인구집중으로 인해 정주민족도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농촌지역은 농가경제 악화로 인한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농촌인구 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로 지방소멸에 앞서 마을 소멸에 대한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가 농어촌을 위해 ▲농어촌 지역발전투자협약 및 농촌협약 등 중앙부처 지원 분권형 균형발전사업 확대 ▲농어촌 지역 인구 유입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생활 SOC 확충, 3·6·5 생활권(30분 내 보건·보육 등 기초생활 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5분 내 응급상황) 구축 추진 ▲농어촌 지역여건에 적합한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지원,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농상생일자리 창출, D(Digital)·N(Networ)·A(AI) 기술을 접목한 농어촌 융복합산업 육성 등의 정책 시행을 제안했다. <끝>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에너지자립도시 분과위원 위촉식. 이윤성 광주시장은 12일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2045 에너지자립도시 기술분과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박차

3개 AI 전문업체와 협약 체결

광주시가 추진중인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12일 광주시청에서 인공지능 전문기업인 아이와즈·파이오링크·한기술과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광주 인공지능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 및 관련 전문분야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술·정책 자문 ▲인공지능분야 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법인 및 지역사무소 신설 ▲AI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기업홍보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이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아이와즈는 정보검색 기반 검색 엔진 등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파이오링크는 네트워크·정보 보호 전문기업으로 웹·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등을 개발하고 있다. 한기술은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와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 기반 통합 솔루션 개발 전문 업체다.

시는 현재까지 25개 인공지능 기업을 유치해 11개 기업이 법인과 사무실을 개소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공사·출연 15개 기관 하반기 69명 채용 전남도립미술관, 뮤지엄 아이덴티티 공개

9월4일까지 접수...26일 시험

전남도가 올 하반기 도 산하 공사·출연 기관 통합채용 절차를 거쳐 15개 기관 69명의 직원을 선발한다.

이는 지난 2017년 통합채용을 실시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 5명 ▲전남테크노파크 8명 ▲녹색에너지연구원 1명 ▲중소기업진흥원 1명 ▲전남신용보증재단 8명 ▲전남생물산업진흥원 6명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6명 ▲전라남도문화재단 3명 ▲전라남도관광재단 5명 ▲전남복지재단 4명 ▲전남청소년미래재단 3명 ▲순천의료원 14명 ▲강진의

료원 1명 ▲한국학중앙연구원 1명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3명 등을 각각 선발한다.

원서는 오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및 채용기관별 누리집을 비롯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시스템인 클린아이잡플러스(<https://recruit.incruit.com/jeonnam/>)에서 확인하면 된다.

통합채용 필기시험은 오는 9월 26일 치러지며, 전남도 주관으로 시행된다. 면접과 최종 합격자 선발은 채용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립미술관이 뮤지엄 아이덴티티(MI)를 최종 결정하고 공개했다. 전남도립미술관의 MI는 영문 명칭(Jeonnam Museum of Art)의 이니셜 약자(JMA)를 건축적, 공간적 이미지로 표현한 것으로 '예향 전남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미술관'을 상징한다. MI는 응용디자인이 쉽도록 개발됐다. 전남도립미술관은 현판과 안내판, 표지판, 현수막 등 사인물을 비롯 각종 아트상품 개발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전남도립미술관은 현대미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즐거움을 제공하고 예술의 개방성과 다양성,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또 특화 교육과 아트아카이브 구축으로 학술연구를 심화하고 지역 미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미술관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은 "전남도립미술관 MI는 예향전남의 자부심과 위상을 국제적으로 부각시키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며 "내년 개관은 이를 실현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긴급재난지원금' 서둘러 신청하세요

광주 미신청 1만 5763가구

24일 마감...미신청액 기부 간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24일 마감된다.

광주에서 아직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시민은 1만5763가구로, 신청 마감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마감일인 24일까지 신청하지 않은

면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금액은 기부 처리된다.

신용카드 포인트나 광주상생카드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 및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지난 11일까지 광주시가 지급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체 61만5188가구의 97.4%인 59만9425가구 4018억9000만원이며, 아직까지 미신청한 가구는 1만 5763가구에 이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2020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수 시	정 시
	학 과	모 집 인 원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사 법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교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교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0. 9. 23(수) ~ 28(월)
· 전 형 일: 2020. 10. 12(월)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 7(목) ~ 11(월)
· 전 형 일: 2021. 1. 18(월)

대 학 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 집 인 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00
		목회학과(D.Min.)	0
일반대학원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0
		신학과(Th.M.)	0
		유아교육학과(M.Ed.)	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0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0. 8. 5(수) ~ 14(금)
· 전 형 일: 2020. 8. 19(수)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110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13길 36